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pla@minjoo.kr

한국노총 충남세종 지역본부 및 각급 조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노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 이재명!”

한국노총 충남세종 지역본부, “우리의 목표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

노동존중 선대위에 결합하여 활동 중인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이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 전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이어갔다.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는 26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의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충남세종지역본부 지지선언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공동위원장), 충남세종지역본부 고석희 의장 외 단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재관 의원 등이 참석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무시했고, 탄압했다”며 “정말 암울한 시대인 지금, 우리의 목표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우리의 선택으로 노동을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고석희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의 노동 정책과 오랫동안 손을 잡아왔다”며 “충남 세종본부는 오늘 이뤄진 정책협약식 및 지지선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동에 대한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서울지역 단위노동조합대표자, 공공연맹 대전지역본부, 한국노총 익산시 지역지부,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등 한국노총 각급 조직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계속돼

같은날(26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단위노조 대표자들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주영·이수진·박해철 의원, 전국노동위원회 김대련 수석부위원장, 전국노동위원회 유주동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역본부 단조대표자들은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노동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와 희망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을 위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은선심 서울지역본부 상임부의장은 “이재명 후보는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 존중을 행정의 중심에 세운 실천적 정치인이자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에 함께 하며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선 후보”라며 “오늘의 결의를 모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지선언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주영·이수진·박해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한국노총의 결정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노총이 가는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공연맹 대전지역본부, 한국노총 익산시 지역지부, 금융노조 NH농협지부 등이 26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선언을 진행했다

※ 첨부: 현장 사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단위노동조합 대표자 지지선언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